

[기획] >> 5면
코로나 학번의 변화된 생활

[심층] >> 7면
6.1 지선 청년들의 선택은

[학술] >> 9면
인플레이션의 공포

[인물] >> 12면
지은경 수능 아랍어 강사를 만나다



3년 만의 글로벌캠퍼스 축제, 그 뜨거운 현장을 담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선 '2022 대동제 #Spring cooler' (이하 대동제)가 개최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대동제가 진행됐다. 이번 기사에선 대동제 속 뜨거운 현장의 순간과 축제를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나라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동시통역 진행해

지난 10일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과 통번역센터는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개최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 취임식에서 동시통역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취임식을 간략히 진행한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재개됐다.

동시통역은 행사장 옆에 마련된 통역 부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동시통역 된 연설 내용은 취임식에 참여한 각국의 대사와 외신 기자에게 전달됐다. △러시아어△아랍어△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총 6개의 언어로 통역됐으며 △박순례 한학과 교수(이하 박 교수)△김진아 한중과 교수△김한식 한일과 교수△박미정 한일과 교수△박인나 한러과 교수△방교영 한러과 교수(이하 방 교수)△이주연 한영과 교수△조정민 한아과 교수△편혜원 한불과 교수△황지연 한중과 교수 등 총 10명의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진과 △김현정 영어통역사△김효탁 프랑스어통역사 등 2명의 통역사가 참여했다.

러시아어 동시통역을 진행한 방 교수는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은 아시아 최고 위상을 지닌 동시통역 전문 양성 기관이기에 국가의 주요 행사에서 통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식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제 사회에 전달되는 첫 순간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느낀단 소감을 전했다. 아랍어 동시통역을 진행한 박 교수 또한 "윤 대통령 취임식에 담긴 국정 철학을 실수 없이 전달하는 데 힘썼다"며 "9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직접 동시통역을 제공했다 사실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은 지난 2005년 세계통번역대학원협회(CIUTI)에 아시아 최초 회원교로 등록돼 국내외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식부터 동시통역을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주한 루마니아 대사, 우리학교 방문해

지난 12일 체자르 아르메아누(Cezar Armeanu) 주한 루마니아 대사(이하 체자르 대사)와 클라우디우 쿠쿠(Claudiu Cucu) 영사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를 방문했다. 루마니아 대사 일행은 명수당에 위치한 루마니아어과 20주년 기념비 '무한의 기둥(Colana infinitului)'을 참관했다. 이후 우리학교 총장을 만나 양 국가 교육 기관 간 교류 활성화 및 루마니아 정부와 우리학교가 추진 중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 당일 글캠 어문학관에선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이 기획한 루마니아 전통 △도자기△의복△장신구 등 공예품 전시회가 개최됐다. 전시회를 관람한 이후 체자르 대사는 루마니아어과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루마니아의 관계'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루마니아와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교류해 온 역사를 언급하며 두 국가가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학교 루마니아어과의 수많은 졸업생들은 양 국가의 교류 증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국제적인 공급망 위기로 국가 간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 현 시기에

앞으로도 루마니아어과 학생들이 양 국가의 교류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루마니아어과 졸업생인 김희영(동유럽·루마니아어 18)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 직원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사이의 친분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루마니아 민속 공예품 및 전통 의복 전시회를 관람한 조명지(동유럽·루마니아어 19)씨 또한 "전시회를 통해 루마니아의 전통 공예품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당일 우리학교 구성원을 위해 직접 전시회를 기획한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에게 감사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 대해 김정환 우리학교 루마니아어과 교수는 "재학생의 적극적인 강의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학교 루마니아어과 재학생의 어문학적 교육 증진뿐 아니라 다양한 교류 활동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UNISTORY
Unique History in building trust

소중하고 기분 좋은 투자 역사를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Espresso while unnoticed, serves as the base for most type of coffees.
Espresso is one of the coffees that gain the least interest from the crowd.
People say it isn't easy to get used to the bitterness or don't crave the taste...
However, Espresso is always on the menu everywhere you go.

UNISTORY works hard to become Espresso of the customers' assets.
Company tha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clients,
Company that highly values customers' worthiness,
Company that continues to fulfill its role on a consistent basis.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AI 교육원, 2022 스마트캠퍼스 아이디어 페스티벌 공모전 개최해

지난 6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우리학교 AI 교육원과 정보지원처의 주관으로 진행된 '2022 스마트캠퍼스 아이디어 페스티벌 공모전'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학교 구성원의 활력을 높이는 정보 기술△캠퍼스 내 시설 사용 관련 서비스△학업 활동 및 진로 탐색 등을 돕기 위한 정보 서비스△학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관련 스마트 서비스 등 학업과 캠퍼스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정보 기술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모집을 진행해 총 54개 팀이 참여했으며 그 중 본선 진출 11개 팀을 선발 후 공모전 발표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양성△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과 취업을 향상△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아이디어 고안△학습 동기부여를 목표로 진행됐다. △곽민규(사회·미디어 18)△장정아(경영 19)(이하 장 씨)△최유정(일본·일어문 19)△홍수진(아시아·몽골어 18) 씨로 구성된 '홍익인

간' 팀은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 관련 공지사항을 편리하게 모아볼 수 있는 '맞춤 장학 서비스'를 제안해 대상을 받으며 총장상과 10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엔 학생 핵심역량 통합관리시스템(HUFSAbility)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앱을 제안한 '81Studio' 팀과 우리학교 통합 앱 개인화 서비스와 건물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학교 2022 스마트캠퍼스 아이디어 페스티벌 공모전 (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익인간 팀의 장 씨는 "평소에 우리학교 장학 게시판을 이용하며 느낀 불편함을 아이디어로 활용해 공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프로젝트를 제안한 '제이랑케이' 팀이 선정돼 각 캠퍼스 부총장 상과 5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우수상 3팀과 장려상 5팀을 포함해 총 11개의 팀이 공모전에서 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홍

모전에 참여했다"며 "△UI△알고리즘△엑셀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해준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81Studio' 팀의 김시영(경상·GBT 18) 씨는 "편리한 학교생활을 도모하도록 공모전을 열어준 학교 측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이번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현돼 많은 학생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활력을 높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이윤석 정보지원처장은 "대학교 정보 서비스의 사용 주체인 학생의 관점에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청취한 뜻깊은 기회였다"며 이후 학생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I 교육원 관계자 또한 "공모전 수상한 아이디어를 각 관계 부처로 전달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들어 제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글로벌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기업탐방 및 취업 멘토링 진행해

지난 10일 화장품 사업 마케팅 직군을 희망하는 우리학교 학생 6명과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진로취업지원센터 소속 경영 분야 취업 전문 상담관으로 구성된 기업탐방단이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Amore Pacific) 본사를 방문했다. 행사 당일엔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이하 김 이사)△이주아(사회·미디어 06) 아모레퍼시픽 인재선발팀 직원(이하 이 직원)△이해용 아모레퍼시픽 인재선발팀장과의 취업 멘토링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글캠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이번 학기 학생 핵심역량 통합관리시스템(HUFSAbility)의 비교과 과정으로 '아모레퍼시픽 기업탐방'을 기획했으며 4학년 이상의 다음 분기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신청 학생

중 서류 심사를 통해 △적합도△지원 동기△화장품 산업에 지원 경험을 고려해 최종 6명이 선발됐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김미진 글캠 진로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이하 김 취업지원관)은 "우리학교의 많은 학생이 화장품 산업 관련 직군을 희망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이 직접 희망 직군의 기업 대표와 인재선발팀장을 만나 회사의 경영 이념과 핵심 가치 등을 알고 체계적인 취업 준비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 '최고 경영자와의 오찬 및 다과' △2부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 탐방' △3부 '아모레퍼시픽의 인재 선발 기준과 채용 절차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1부에 참여한 김 이사는 "직접 본사에 찾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가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영하(영어·EIOC 18) 씨는 "평소 해외 영업 분야에 관심이 많아 이번 행사에 지원했다"며 "지원 분야에 종사하는 현직자와의 면담을 통해 판매 제품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예지(자연·화학 17) 씨 또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마케팅 직무를 희망하고 관련 분야 채용에 참여했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해 우울한 시기를 겪었다"며 "이번 행사에서 인재선발팀과 만나 채용 담당자의 입장을 알아보고 방향성을 찾아 새로운 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직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에게 다양한 조언을 전달했다. 그는 이번 행사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및 화장품 기업 마케팅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과 관심이 인상 깊었다"며 우리학교 후배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원하는 직군에 취업하길 바란단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 취업지원관은 "이번 기업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추후 많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기업 탐방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폐자재 활용해 인공 새집 설치해

지난 9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행정지원처 부처인 시설관리팀은 글캠에 인공 새집인 '자투리 나무 주택'을 설치했다. 자투리 나무 주택은 목공 후 남은 폐자재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작했으며 △교양관△백년관△어문학관△학생회관 위 숲길 등 글캠 내에 총 10개를 설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글캠 시설관리팀은 목공실에 남은 목자재에 새가 알을 낳는 것을 발견한 후 새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인공 새집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준형 글캠 시설관리팀 팀장(이하 배 팀장)은 "자투리 나무 주택에 새가 알을 낳고 부화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정지원처는 자투리 나무 주택 설치를 통해 학생에게 자연과 어우러진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제공하고 산새에게 보금자리를 선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행정지원처장은 자투리 나무 주택을 자연 친화적

인 글캠의 특성을 살린 작품이라 소개하며 "자연과 학교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캠퍼스가 되도록 작은 실천부터 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김예림(경상·GBT 20) 씨는 "새소리와 평화로운 분위기가 더해져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학교만의 분위기가 잘 살았었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아름다운 캠퍼스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 팀장은 "다음 해 산란기에 맞춰 자투리 나무 주택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명수당 내 벤치 제작과 잔디밭 조성 등 조화로운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제 2회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수여식 열려

지난 11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본관에서 제 2회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이하 강 전 총리)-김효수(서양어·영어 58) 여사(이하 김 여사)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엔 △강성룡 변호사(이하 강 변호사)△강효영 변호사△강혜원 씨를 비롯한 강 전 총리와 김 여사의 유가족과 △박정은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양인집 총동문회장(이하 양 회장)△박철원 총동문회 사무총장△김민정 설캠 학생인재개발처장△윤경옥 대외협력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강 전 총리와 김 여사의 유가족은 부모님의 뜻을 기려 총동문회에 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에 따라 총동문회는 지난해부터 매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1명씩 선발해 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달 향년 95세로 타계한 김 여사에 대한 애도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강 전 총리와 김 여사의 자녀 강 변호사는 "고인은 항상 인재 양성을 중시하며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젊은 인재를 돕고 싶어 했다"며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이 우리학교의 이

름을 널리 펼치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양 회장은 "고인의 뜻깊은 장학금의 지급과 관리 책임을 맡게 돼 영광이다"고 전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다빈(서양어·네덜란드어 20) 씨는 "장학금을 받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며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교관을 꿈꾸며 우리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장학금을 수여받은 김주민(영어·EIOC 21) 씨는 "장학금으로 큰 도움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추후 우리학교 후배를 위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재단법인 한국외대동문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 중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청농 강영훈 국무총리-김효수 여사 장학금 선발 계획'을 공고한다. 장학생은 △성적△소득 △구간△장학금 신청 사유를 기준으로 1차에서 3배수 선발 후 재단 이사회에서 총 2명을 최종 선발한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2022년 정기시험 안내

국내 최초,
최대 7개 언어 국가공인 인증(듣기·읽기)

FLEX^{TO}
플렉스
할래?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2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7 ~ 02.23	03.20	04.08	04.22
2회	04.28 ~ 05.04	05.29	06.17	07.01
3회	08.04 ~ 08.10	09.04	09.23	10.07
4회	10.06 ~ 10.12	11.06	11.25	12.09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시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3년 만의 글로벌캠퍼스 축제, 그 뜨거운 현장을 담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서 '2022 대동제 #Spring cooler'가 개최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3년 만에 대면으로 축제가 진행됐다. 대동제에선 △가수 찬조 공연△세계민속문

화축전(이하 세민전)△여러 체험 부스 진행△총학생회XFBS 가요제 흡스 청춘 페스티벌(이하 흡스 청춘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글캠 축제의 현장을 따라가 보자.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글로벌캠퍼스 축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우리학교 글캠에서 대동제가 개최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열린 전면 대면 축제다. 지난 2020년 우리학교 글캠 대동제인 '앙코르(Encore)' (이하 앙코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YouTube)를 이용한 전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지난해 열린 글캠 대동제인 '우리의 온도' (이하 우리의 온도)는 메타버스(Metaverse)와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제한적인 대면 방식을 허용했다. 우리의 온도는 2020년 진행된 앙코르와 달리 비대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대동제는 시작 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동제 전부터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선 △개최 시간△참여 방법△판매 음식 등을 문의하는 여러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승리(공과·컴전 20) 씨(이하 유 씨)는 "우리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 대면으로 경험하는 대동제인 만큼 큰 기대가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여하지 못했던 대동제를 맘껏 즐기고 싶다"고 전했다. 김지호(공과·컴퓨터 21) 씨(이하 김 씨)는 "졸업 전 대면으로 대동제를 즐길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작년 진행된 대동제는 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쉬움이 남았다"며 "이번 대동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됐던 우리학교 학생 사이의 유대감과 우리학교에 대한 소속감 증진을 목표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뜨거운 현장의 순간들

대동제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가수 찬조 공연△노래동아리 '해무리'의 '해무리 버스킹' △음식 부스△체험 부스 등을 즐겼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 사이에 글캠 도서관 앞에서 왕산문화예술관까지 △각 학과△단과대학△총학의 부스가 열렸다. △러시아학부의 '러시아 룰렛' △아프리카학부의 '아가냥시' △인도학과와 헤나(Henna) 체험△한국학과와 '사랑은 낭만을 타고' 등의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아가냥시 부스를 진행한 윤예주(국제지역·아프리카 22) 씨는 "아프리카학부의 체험 부스를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학교 학생이 체험 부스에서 즐거운 시간

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학과와 대면 소개팅 부스를 총괄한 김원(국제지역·한국 21) 씨는 "색다른 대동제를 위해 직접 기획한 대면 소개팅이 에타에서 큰 화제가 돼 기쁘다"고 전했다. △독일어통번역학과와 소세지△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와 카야 토스트△스페인어통번역학과와 추러스 등 각 학과를 대표하는 특색 음식도 즐길 수 있었다. 카야 토스트를 조리한 안재희(통번

역·마인어 22) 씨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의 특색 음식을 맛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카야 토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스페인어통번역학과와 부스에선 황소 인형 탈을 쓴 학생과 세민전 준비를 위해 스페인 전통의상을 입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남공준(통번역·스페인 20) 씨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동물인 황소 탈을 써 추러스를 구매할 손님을 모으고 있다"며 "직접 준비한 탈이 대동제에서 큰 인기를 끌고 기쁘다"고 말했다. 대동제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생회관 앞에선 총학이 주관한 △사주 부스△타로 부스△푸드트럭 또한 운영됐다. 푸드트럭에선 △닭강정△닭꼬치△소고기 초밥△음료△타코야끼△화덕 피자 등을 판매했다.



▲인도학과와 세계민속문화축전 공연



▲'2022 대동제 #Spring cooler'에 참가한 우리학교 학생들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앞에서 왕산문화예술관까지 열린 각 학과 부스들



▲'러시아 룰렛' 게임을 즐기고 있는 러시아학과 학생들

이번 대동제에선 다양한 학생과 가수가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노래동아리 해무리는 대동제 기간 동안 오후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명수당 앞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노천극장에 앉아 해무리의 버스킹 공연을 즐겼다. 해무리 회원인 이지윤(응인 22) 씨는 "우리학교 학생과 함께 해무리의 공연을 즐길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대동제 2일 차인 18일엔 오후 6시 반부터 백년관 잔디구장에서 흡스 청춘 페스티벌과 불빨간 사춘기의 공연이 진행됐다. 총학과 우리학교 글캠 교육방송국(FBS)이 주관한 흡스 청춘 페스티벌

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대동제 기간 동안 우리학교는 △글캠 학생으로 구성된 축제준비위원회 개설△셔틀버스 연장 운영△식사 공간 설치△차량 통제 등 모두가 만족하는 대동제를 위해 노력했다. 유 씨는 "학교 곳곳에 쓰레기통이 배치돼 있어 식사 후 쓰레기를 처리하기 편리했다"며 "대동제를 위해 우리학교에서 많은 준비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대동제를 마무리하며 글캠 총학은 "총학 구성원 대다수가 대동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준비 과정이 힘들었다"며 "이번 대동제에 우리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동제 마지막 날인 19일엔 오후 6시 반부터 백년관 잔디구장 앞에서 △세민전△가수 '보라미유' △가수 '싸이' 순서로 공연이 열렸다. 3분가량의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세민전에선 △한국학과△인도학과△아프리카학부 순으로 공연이 진행됐다. 각 팀은 해당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에 맞춰 전통춤을 췄다. 이후 오후 7시 10분부터 보라미유와 싸이의 공연이 진행됐다. 대동제 기간 동안 진행된 모든 공연을 관람한 박정원(통번역·영어 22) 씨는 "흡스 청춘 페스티벌은 우리학교에 끼가 넘치는 사람이 많단 걸 알게 해준 가요제였다"며 "이후 진행된 가수 찬조 공연 또한 꿈꾸는 것처럼 즐거웠다"고 밝혔다.

◆축제를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대동제에선 코로나19 상황 속 대면 축제를 진행하기 위한 우리학교

캠퍼스에 부는 새바람, 코로나 학번의 달라진 대학 생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대학교 입학 후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20학번△21학번△22학번을 코로나 학번이라 말한다. 특히 20학번은 학교생활 3년 차인 이번 해가 돼서야 비로소 정상적인 학교생활

을 할 수 있게 됐다. 달라진 학교생활을 경험하게 된 김경주(사회·행정 20) 씨와 이승은(동유럽·세커 20) 씨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된 학교생활에 대해 들어보자.

◆ 코로나19로 인해 기대와 달랐던 2020년

Q1.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험생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대학 생활이었을 텐데 입학 당시의 생활은 어땠나요?

김경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내기 배움터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점차 개선돼 멤버십트레이닝(이하 엠티)이나 축제 등 대면 행사가 실시될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강이 3월 중순으로 연기됐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모든 행사가 취소돼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컸어요.
이승은: 삼수를 했기 때문에 먼저 대학에 간 친구들을 보며 자유롭게 즐거운 대학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신입생 환영회나 엠티가 취소되고 개강이 연기돼 많이 아쉬웠어요.

Q2. 줌(Zoom)과 웹엑스(Webex) 등 실시간 원격수업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방식이 생소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나요?

김경주: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온라인 비대면 수업 방식이 생소하다 보니 마이크를 끄고 수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업에선 학우 두 분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다투다 교수님이 제지하신 적도 있었죠. 다들 한 번씩 유사한 경험을 겪어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승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마이크와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야 해 한 달 동안 수업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 마이크를 사용하기 힘들었어요.

Q3. △동아리 활동△새내기 배움터△엠티△축제 등의 대면 프로그램이 일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었나요?

김경주: 전 대학이 전공 학습 이외에도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선배와 동기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고등학교 범위에서 더 이상 넓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마치 고등학교 4학년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 아쉬웠죠.
이승은: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가 적어 아쉬웠어요. 또한 선배와 교류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 속상했습니다.

Q4.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대로 비대면 수업의 장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학교생활을 하며 느낀 장점은 무엇인가요?

김경주: 1교시 수업이 많았는데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침에 여유롭게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어 편했어요. 또한 원하는 장소나 약속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이승은: 1교시 수업을 들을 때 통학 시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또한 어문계열학과 특성상 외국어 수업이 많은데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바로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했어요.

◆ 비대면 생활에 익숙해졌던 2021년

Q1.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채 2학년이 됐습니다. 지난해의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주: 짝 선배·짝 후배 행사나 온라인 새내기 배움터 등을 통해 21학번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학교생활에 대해 알지 못해 알려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한계가 있었어요. 21학번 후배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했죠.
이승은: 2학년이 됐음에도 학교생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 원격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회 활동을 했죠. 비대면으로 21학번 후배와 소통하다 보니 정보전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어요.

Q2. 2021년 1학기부터 50인 이하 강의는 대면으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2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첫 대면 수업을 경험했는데 첫 대면 수업은 어땠나요?

김경주: 처음 대면 수업을 들었을 때 강의실의 위치를 알지 못해 헤맸습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찾아보며 겨우 강의실을 찾았죠. 또한 인원 제한으로 수강 인원이 적다 보니 강의실의 분위기가 고등학교 교실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단 생각이 들었어요.
이승은: 동기들을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날임에도 비대면 수업 때 얼굴을 익힌 덕분에 어색해보단 오히려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면 수업이 나름 활성화돼 학과 사람들과 소규모로 만날 수 있어 좋았어요.

Q3. 우리학교는 2021년 1학기부터 학번 끝자리를 홀수와 짝수로 나눠 대면과 온라인 송출 비대면 수업을 주별로 교차 수강하는 미러링 수업 방식을 진행했습니다. 미러링 수업 방식은 어땠나요?

김경주: 격주로 학교에 가다 보니 수업이 한 주 휴강될 경우 한 달에 한 번만 학교에 가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오히려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죠. 개인적으로 수업이 전면 대면 혹은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승은: 회화 수업의 경우 인원수 상관없이 대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미러링 수업과 회화 수업이 연속될 경우엔 격주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연달아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싶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는 주차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면 수업에 참여했었죠.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생각해요.

Q4. 지난해 학교생활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김경주: 학과 내 학회 활동을 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학회에서 동기 및 후배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대학생이 된 것 같았어요. 학회 활동이 소규모로 진행되긴 했지만 학과 선·후배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사실이 실감났어요.
이승은: 대면으로 진행했던 종강총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전공과목 '세크로비전'의 한 반 모두가 한 학기 동안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과 라라랜드(*La La Land*)를 전공어로 패러디해 만든 영상을 글로벌캠퍼스 어문학관의 큰 강의실에서 빔프로젝트로 송출하며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죠. 또한 종강총회 이후의 뒤풀이도 재밌었어요.

◆ 활기찬 학교생활이 가능해진 2022년

Q1. 활발해진 이번 학기의 캠퍼스를 맞이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김경주: 2020년과는 달리 현재는 많은 사람을 학교에서 볼 수 있어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행정학과는 대면 수업이 많지 않아 대면 수업이 많은 어문계열학과 학생들이 부러웠는데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활기찬 캠퍼스를 거닐 수 있어 행복해요.
이승은: 통학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학교에서 동기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학생들로 북적이는 캠퍼스를 보니 이제야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던 생각이 들어요.

Q2. 대면 행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경험한 행사에 대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김경주: 이번 달 13일에 열린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회에 참가하며 지난 2년간 대면 행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이 참여한 것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대면 행사를 기다렸음을 느낄 수 있었죠.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소속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한 입장에선 오랜만에 열린 사회과학대학의 대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뜻깊었어요.
이승은: 과연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돼 대면 행사를 즐길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번 해 드디어 기대하던 축제를 대면으로 즐길 수 있어 좋았어요.

Q3.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시험 방식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김경주: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제가 집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조용히 시험을 치를 수 있단 점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부정행위 방식을 위해 '타입 어택 문제'를 출제해 시간 부족으로 못 푸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죠. 한편 대면 시험은 모두가 공정하게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막기 쉽단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오픈북으로 진행되던 비대면 시험에 익숙해진 탓에 대면 시험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크단 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죠.
이승은: 비대면 시험은 컴퓨터를 통해 우리학교 이클래스(e-class)로 시험을 보는 방식이다 보니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 줄어 편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단 단점이 있죠. 반면 대면 시험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적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만 통학시간이 길어 힘들단 단점이 있어요.

Q4. 3학년이 돼서야 활발한 학교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의 학교생활은 어땠으면 좋겠나요?

김경주: 고학년인 만큼 남은 2년 동안 우리학교에서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취업을 앞둔 입장이기 때문에 학점 관리와 동시에 선후배 및 동기와의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요.
이승은: 이제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해진 만큼 학교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다음 학기에 '7+1 파견 학생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는데 파견 국가에서의 수업도 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모든 순간이 찬란했던 독일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 우리학교 재학 중에 반드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에 다녀오겠다고 다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교환학생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지난해 9월에 독일로 떠나 라이프치히대학교(Universität Leipzig)에서 공부했다.

독일의 학기는 여름학기(Sommersemester)와 겨울학기(Wintersemester)로 나뉘며 대학생은 학기 중 학과 수업과 어학원 수업을 병행한다. 수업시간엔 조별 과제나 발표 등을 진행하고 운동 수업도 수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보다 훨씬 여유 있는 시간표를 만들 수 있어 수업이 끝나면 긴 자유시간을 가졌다. 겨울학기엔 친구들과 함께 △보드게임△요리△크리스마스 행사 참여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금요일엔 수업이 없어 한 달에 두 번 이상 여행도 다녀왔다.

라이프치히(Leipzig) 내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여행이었다. 여행을 떠날 때마다 마주하는 모든 것이 늘 새롭고



을 이용하면 △기차△버스△비행기 표의 가격과 이동 소요 시간을 한눈에 비교하고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하다. 독일은 외식비가 매우 비싸지만 마트 물가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고 싶다면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언어 교환 활동인 tandem(Tandem) 등 유학생을 위한 여러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길 추천한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고 소중한 인연을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독일에 다녀온 우리학교 선배가 적어 독일에 가기 전 현지 상황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에 독일 생활 초기엔 △소매치기△의사소통 오류△인종차별 등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일상에서 큰 고난을 겪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달리 늘 도전적인 상황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서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은 내게 교훈이 됐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다양한 역경을 마주하겠지만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됐다.

강가연(통번역 · 독일어 19)

프랑스

<펠프>

- 냉혹한 도시를 유영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 -



새삼스러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냉혹하다. 모두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하며 발버둥 친다. 이렇게 쉬어갈 틈이 없는 시대에 여유는 사치다. 사람들은 사회의 부속품으로 똑바로 기능하기 위해 기계가 되기를 자처한다. 이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인류애나 희망은 점차 사라져간다.

작가 '쥘리앙 부이수(Julien Bouissoux)(이하 부이수)'는 2003년 책 '펠프'를 통해 인류애가 상실된 도시 파리를 살아가는 청년 '트리스탕 포프'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부이수는 1975년 프랑스의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에서 태어났다. 열두 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파리와 런던 등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이후 △미국△캐나다△헝가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했다. 대학교에선 경제학을 전공했으나 전공을 살리지 않고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영화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펠프엔 극적인 사건이 전개되지 않는다. 주인공이자 소설가인 트리스탕 포프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책을 출간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된 뒤 여러 범죄를 일으키는 내용이 전부다. 그러나 소설 속에선 범죄의 심각성이 그리 진지하게 묘사되지 않는다. △현관 매트 훔쳐 팔기△빈 아파트 무단 침입△지하철표 훔치기△성당 헌금함 훔치기 등의 범죄가 작가의 재치 있는 표현과 결합해 익살스런 사건으로 변모한다. 이런 사건들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트리스탕 포프가 △범죄△윤리△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위에서 나열된 범죄를 일으키는 사이에 두 번의 연애와 이별을 겪고 공무원이 돼 노인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배급한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을 겪지만 누구와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리고 작중에서 그가 겪는 △범죄△실업△연애 등 다양한 사건들을 마치 본인이 제삼자가 돼 관찰하는 것처럼 여유롭고 냉소적인 태도로 대한다. 그러나 이런 표현 방식이 오히려 인류애가 사라진 파리의 냉혹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우리나라의 '버티고' 출판사에서 수입·발간한 펄프 역본엔 역자이선주가 부이수와 나눈 33가지 질문이 담긴 인터뷰가 실려 있다. 부이수는 질문에 짤막하게만 대답하거나 이에 답변을 회피하며 인터뷰에 냉소적으로 응했는데 이 태도가 트리스탕 포프의 행동과 말투를 연상시켜 작품을 읽는 재미가 더해진다. 펄프를 읽으며 현대 사회의 냉혹함을 직시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냉소적인 청년의 재치 있는 나날에 빠져보길 바란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The Unique & The Best'

⑤ HUFS makes me special :
오바마 대통령, 세계인의 시선으로 외대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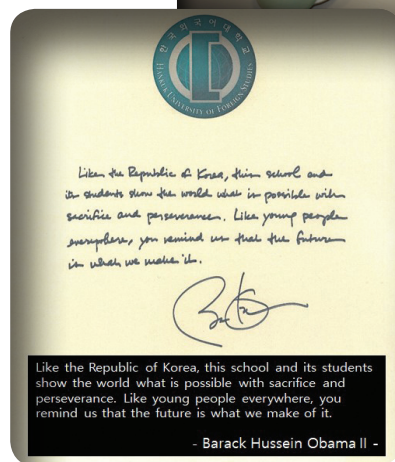
▲오바마 전 대통령 우리학교 방문 특강(2012.3.26)

세계와 인류를 이해하고 이와 교류하기 위한 우리학교의 오랜 노력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지구촌 평화란 보편적 가치와 맞닿아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0년 전 3월 26일 우리학교를 방문했던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전 미국 대통령(이하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특별 강연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오디토리움 강단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공영 방송국 ABC를 비롯해 수많은 세계 언론이 주목하



▲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도장



▲오바마 전 대통령 방명록

는 가운데 특유의 단호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우리학교를 소개했다.

“이 훌륭한 대학에 와 보십시오! 새로운 세대가 세계무대로 뻗어나가며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회를 만들어 내는 이 대학에 와 보십시오!”

핵 안보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세계평화와 실현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우리학교를 찾았다. 평소에도 평화·외교의 근간으로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그가 특별 강연 장소로 우리학교를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설립 이래 유엔(UN)한국협회와 대학생 모의유엔총회를 비롯해 세계적 소통 활동에 앞선 대학△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를 교육하는 대학 중 하나 △우리나라에서 지역학 연구가 가장 특화된 대학인 우리 학교는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분단국가이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적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학교의 역사와 관계시켜 강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십 년 동안 △경제인△공무원 △외교관 분야의 인재를 배출해왔고 이들은 대한민국이 란 현대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극민국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동적 경제 중심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내향적 국가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안보와 번영을 이끄는 선도자, 즉 국제적인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 세대가 물려받을 대한민국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학교는 지난 1950년 한국 전쟁 휴전 협정 체결 직후 정부의 국립 외국어대학교 설립 구상을 계기로 1954년 4월 20일 개교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세계화를 통한 빈곤의 극복과 국가 재건이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있었다. 우리학교 설립 1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외국어 교육을 금지당했고 외국어의 주체적 교섭도 진행할 수 없었다. 우리학교의 설립엔 이런 뼈아픈 역사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었다. 외국어 교육은 국가 주권 수호의 밑거름이기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를 교육하는 우리학교와 같은 고등교육기관의 존재는 주권 국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학교가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의 폐해를 딛고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변모하는데 헌신했으며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왔다. 또한 △국가의 미래 제시스 세계와의 소통△지구촌 평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 70여 년간 인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세계적 융복합 대학으로 발돋움한 지금의 우리학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HUFS' tory - 외대, 세계를 품다. 2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미래를 위한 청년의 선택은

다음 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 당선 후 진행되는 첫 선거다. 역대 지선 중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이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는 선거이기에 국민의 표심이 대선 결과

와 동일할지 주목받고 있다. 또한 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 관련 공약은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6.1 지선의 표심△지선 후보들의 청년공약△청년공약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목소리에 대해 알아보자.

◆6.1 지선의 표심

다음 달 1일 열리는 지선에선 △교육감△시·도지사△지역구 재·보궐 선거 등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 2018 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우세했다. 시·도지사 선거에선 △경상북도△대구시△제주도를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최근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강원도△경상남도△부산시△서울시△충청도 등에서 4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진행된 대선 표심 그대로 투표가 이뤄진다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각각 10곳과 7곳에서 앞선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 이내에 치러졌던 지난 1988년과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여성이가족부 폐지 보류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측각적인 군인 월급 인상 연기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다’란 긍정적인 평가와 ‘국정수행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란 부정적인 평가는 각각 51.2%와 44.2%를 기록했다.

이번 지선에서 우리학교와 연관이 있는 시·도지사 선거는 △경기도지사△서울시장△용인시장이다. 지난 14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39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송영길 민주당 후보(이하 송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이하 오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6.5%와 56.5%다. 두 후보 간 20대 지지율의 차이는 22.7%p로 오 후보가 크게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이번 지선에서 가장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데일리리서치△리서치앤리서치△리얼미터△한국갤럽△한길리서치에선 제36대 경기도지사 김동연 민주당 후보(이하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 힘 후보(이하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했다. 이 중 △글로벌리서치△데일리리서치△한길리서치는 김동연 후보가, △리서치앤리서치△리얼미터△한국갤럽은 김은혜 후보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오차범위 내의 결과이기에 선거의 판도가 끝까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 16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9대 용인시장 선거의 백근기 민주당 후보(이하 백 후보)와 이상일 국민의 힘 후보(이하 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1.6%와 45.9%다. 백 후보와 이 후보는 20대 유권자에게 각각 46.1%와 36.6%의 지지를 얻었다.

◆지선 후보의 청년공약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선에서도 청년층은 선거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란 평가를 받는다. 이에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화두다. 외대학보를 비롯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선 지난 16일엔 오 후보와, 18일엔 송 후보와의 대학언론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선 △교육△일자리스주거 등 후보자의 청년 정책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지난 2014년 인천광역시 시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시장이란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송 후보는 △세대분리형 주택 마련△유엔(UN) 제5분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중앙정부와의 소통 등의 청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초청 대학언론 간담회

공약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세대 분리형 주택을 통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이 임대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주택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반적인 청년 주거 형태보다 더 저렴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용산구에 유엔 제5분부를 설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유엔 제5분부를 유치하면 서울 내 국제 회의가 증가할 것이다”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계획을 전했다. 송 후보는 “교육청엔 항상 교육교부금이 여유가 있다”며 “중앙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대학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38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당선돼 재임을 노리는 오 후보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청년 주거 환경 개선△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등의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학생 지원 공약’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지역 사회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량을 늘리다 보니 주거지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청

년 주택 건축 재료를 고급화하고 주변 편의 시설을 조성해 기존의 청년 주택은 저가 주택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전했다. 주택의 고품질화를 위한 비용이 청년에게 부담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도 편의 시설을 제공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며 “서울시 내의 재정이 확보되면 지원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재임 시절 진행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문·이과 학생 모두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25개 자치구에 모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청년의 취업을 도울 것이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지사 후보들 또한 청년을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 김동연 후보는 “구직 중인 청년에게 면접 수당과 아학시험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면접수당 지급 건수를 현행 6회에서 10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청년을 위한 주택 27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하는 청년에 특화된 상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공약에 대한 학생의 목소리

청년을 위한 각 후보자의 공약에도 청년층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3사의 지난 제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투표율은 65.3%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저조했다. 지선의 경우에도 청년층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을 제외하면 모든 지선의 20대 투표율은 60%를 넘지 못했다.

청년층의 저조한 투표율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여론이 존재한다. 정지은(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지만 실생활에서 정책이 주는 도움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또한 공약 이행에 대한 믿음이 낮아 투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진 못한다”고 전했다. 실효성 있는 공약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이행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청년층 대부분은 △교육△생활△일자리△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형민(동유럽·세크어 20) 씨는 “청년 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높은 집값 등 청년 주거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지선의 핵심은 ‘주거 안정’이란 평가받는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경기도지사△서울시장△용인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는 주거 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번 지선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서영준(서양어·노어 22) 씨는 “청년층의 성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된 시기다”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이영준(응인·21) 씨는 “각 정당의 이익을 내세우기 보단 국민의 의견을 지탱해 줄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선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캐스팅 보트: 의회의 의결에서 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하는 표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 4. 25(월) ~ 4. 29(금)	2022. 5. 30(월) ~ 6. 3(금)
면접전형	2022. 5. 14(토) 10:00	2022. 6. 18(토) 10:00
합격자 발표	2022. 5. 27(금) 16:00 예정	2022. 7. 1(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 5. 30(월) ~ 6. 3(금) 예정	2022. 7. 4(월) ~ 8(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 국어교육 • 영어교육 • 컴퓨터교육 • 스페인어교육 • 일본어교육 • 중국어교육 • 역사교육 • 일반사회교육 • 유아교육 • 수학교육 •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 어원어형어교육 • 독서논술교육 • 인공지능융합교육 •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한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애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통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합 시 불합적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관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입구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4.25(월) ~ 05.06(금)	2022.05.30(월) ~ 06.10(금)
고사장 발표	05.12(목) 15:00	06.16(목) 15:00
면접전형	05.14(토) 10:00 예정	06.1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26(목) 15:00	06.30(목) 15: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충족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어를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증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내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인), 한국어번역과 졸업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재조명된 간호법, 의료사회 속 공정함을 위한 방안은?

지난 12일 대한간호사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제51회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고위원회회를 통과하며 제정이 구체

화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 여러 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간호사가 겪고 있는 고질적 문제△간호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과 갈등 △간호법의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또다시 제기된 간호사의 처우 문제

지난해 10월 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며 간호사의 처우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사 결과 이 간호사는 직장 내 선배 간호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란 뜻을 가진 ‘태움’ 문화와 관련이 있다. 태움 문화란 교육을 명분으로 신입 간호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규율을 말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료업계에 종사 중인 많은 간호사가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했다. 또한 이들이 태움 문화의 증거로 제시한 ‘비밀유지의무 약약서’까지 공개돼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단 사실이 공론화됐다. 송금희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사무처장(이하 송 사무처장)은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꼽는다. 송 사무처장은 “병원의 이윤 극대화에 묻혀 가려진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태움 문화를 발생시킨다”며 태움 문화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사 초기의 간호사는 단기간 교육 후 숙련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된다”며 선배 간호사가 본인의 과도한 업무 외에도 후배 간호사의 일까지 신경 써야 해 갈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의 이윤 극대화로 인한 간호사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온콜(On-call)제도’에 따라 일하고 있다. 온콜제도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복귀해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으로부터 30분 이내 거리에서 대기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 제도는 의료진의 육체·정신적 노고에 비해 당직비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단 한계를 가진다. 더불어 병원 크기에 따라 간호사에게 대기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병원 측은 인건비 축소를 위해 당직제도 대신 온콜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항상 병원 주변 환경에서 머물고 있다.

또한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된 것도 간호사 처우 악화에 큰 영향을 줬다. 앞서 언급한 태움 문화 피해자의 경우 입사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였지만 그녀가 담당해야 할 환자는 23명이었다. 김소남 서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대학병원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수는 10명인데 실제로 40명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다”며 간호사의 업무 강도가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 출처: SBS

◆간호사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과 갈등

1944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의료인을 강제 징용하기 위해 의료령을 만들었다. 이는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의 초석이 됐다. 그러나 1972년부터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움직임이 발생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학생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동의한 국민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화제가 됐다. 청원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는 대학생이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의료법을 남긴 일본은 이미 1948년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해 간호법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가 시대착오적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간호법 제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열리는 등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한 국민의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24일 △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모두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18일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통과 절차를 밟았다. 국회에서 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최초이다.

간호법 제정 과정은 크게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부분으로 진행됐다. 초기 간호법이 명시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모든 업무’였다. 하지만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던 우려가 제기돼 입법부에선 많은 조정이 진행됐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어디서든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정을 촉구했다. 결국 통과된 간호법에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에 국한하도록 규정됐다.

현재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사회의 진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간호사 단체는 이번 간호법 통과가 간호사 환경이 개선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직업과 관련한 규정을 법으로 정확히 명시해 직업적 사명감을 가질 수 있던 기대를 전했다. 신경림 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와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며 “간호법이 앞으로 확대될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의사 단체는 의료인 5개 분야(△간호사△의사△조산사△치과의사△한의사) 가운데 간호사 관련 법안만 제정된 것은 나머지 의료인들을 차별하는 처사란 입장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다양한 보건 의료 직군이 함께 고생했으니 동등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에 참여한 송성용 의협 의무 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극복에 함께해 온 간호조무사와 의사 등 다른 직군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다”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 보단 의료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의 공정한 대우를 통한 기대

독립된 간호법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 중 △독일△미국△일본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사안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에선 간호 교육을 규율하고 있는 ‘Nursing Profession Act’가 지난 2020년에 제정됐다. 여기엔 △대학 간호교육△외국 전문 자격 인정△직업 간호교육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었고 △노인△아동△일반 간호를 통합하고 교육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연방법을 통해 △간호사△노인요양보호사△아동 간호사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간호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은 각 주에서 관할하는 법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간호사 면허△교육△직무 범위 등의 규정 체계가 서로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California)에선 △간호 교육△규정 범위△등록간호사위원회△징계 절차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48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이 제정돼 △간호사△조산사△준 간호사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의 △인재 확보 촉진△양성△처우에 대한 법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의 법률을 간호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에 힘쓰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국제간호협의회 최고경영자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 인력이 충원되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어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간호법이 의료사회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병원 평균 간호사 수는 4.2명으로 이는 OECD 평균 간호사 수인 7.9명보다 약 2배 낮은 수치이다.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겐 과중한 업무가 맡겨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45.5%에 달한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에게 법적으로 적정량의 업무가 정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은 “간호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간호법에 대한 우려사항 역시 고려돼야 한다. 의사 단체 측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직군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현행 의료체계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간호법 제정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이 돼선 안 된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다른 직역에 차별이 생기는 부분은 없는지 고려돼야 한다”고 전했다. 간호법이 공정한 의료사회 구축에 기여해야 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계 구성원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이 많은 논란 속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하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강병원△박범계△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이 ‘협치 파기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 아모레퍼시픽, 35억 횡령 사건 일어나

지난 17일 아모레퍼시픽은 내부 정기 감사를 통해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화상돈 3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알려졌다. 빼돌린 돈은 주식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 들어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 등 업체를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 우리나라 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가격 99% 폭락해

지난 12일 우리나라 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가격이 최고점에서 99% 폭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119 달러까지 올랐던 루나의 가격은 최근 7일 동안 1센트 대까지 떨어졌고 자매 화폐인 테라는 이날 26센트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가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또한 루나와 테라의 폭락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3% 이상 하락하며 2만 6천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뉴욕주 버팔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 뉴욕주 버팔로의 한 대형 마트에서 18세 백인 남성인 페이튼 젠드런 씨가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페이튼 젠드런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미국의 백인 중심 사회가 유색인종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과 이민자에 대한 증오심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인종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다”고 성명을 냈다.

인플레이션 공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물가 상승 해결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inflation)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급망△금리△

환율이 요동치며 국내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손종철 우리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에 초래한 영향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손종철 우리학교 경제학과 교수

Q1. 지난 4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8.3%p 상승했으며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를 넘어서는 등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세계적 추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 가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유동성 공급은 지금까지의 금융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책으로 사용돼왔어요. 이런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중반까지 1% 내외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과잉 유동성 문제가 △미·중의 무역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 예전부터 지속된 공급 측면의 요인과 연결되며 인플레이션을 대폭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어요. 수요 측면에선 “리오프닝(re-opening)”이 이뤄지며 수요 압력이 증가한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시
기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주요국의 제로금리 정책은 △
독일△미국△영국△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켰습니
다. 부동산 가격 자체는 소비자물가에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시차를 두고
임대료에 영향을 주게 돼요. 따라서 임대료도 소비자물가 구성에서 반드시
시 고려해야하는 요인입니다.

Q2. 이번 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인플레이션 기세를 꺾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염두에 뒀아 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 연준) 이사회 위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해 초부터 이어진 ****빅빅스텝** 기조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까지 언급되고 있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미 연준이 중립금리를 바로 타겟팅(Targeting)할 수도 있지만 이 결정이 장기 균형수준으로 이행되기까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실물시장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위의 배경을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선 2000년대 이후 정책금리 조절이 0.25%p로 관행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위 이유 때문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책금리를 대폭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1980년대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 미국처럼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선제적으로 안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다 보니 빅스텝, 즉 0.5%p 인상을 단행했으며 더 나아가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Q2-1. 금리 인상 정책의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금리 인상은 대출 시 부담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금융 시장 측면에선 Δ 가 사회패스부동산 Δ 주식 등 위험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금리 인상→유동성을 축소하고 이로 인한 시장 이자를 상승은 추가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2. 회의 후 미 연준의 발표에 따라 미국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긴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했는데 테이퍼링과 양적 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테이퍼링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 주변을 테이프로 감아 물이 새는 구멍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하되 그 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죠.

양적 긴축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흘러보냈던 물을 다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와 주 택터당증권(주)을 금융시장에 매각하는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유동성의 흡수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규모 축소란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Q2-3. 이번 물가 상승이 주로 공급 측 요인에 따른 것
이란 판단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 연준의 대처가 미
온했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에 의한 인플
레이션과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나
요?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활성화돼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가 소비를 늘려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보통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엔 정책관리 인상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입니다. 이때 경기와 상관없이 국제 유가가 단번에 오르며 기업의 생산비용으로 전가됐고 결과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인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정책적인 인상을 단행하며 경기침체가 뒤따를 수 있어요.

Q3. 지난달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3월 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p 상승한 반면 이번 해 1분기 국내총소득(GDI)은 1.9%로 전기 대비 0.6%p, 지난해 동기 대비 0.1%p 성장에 그쳤습니다. 물가 상승에 반해 소득이 감소하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선 스태그플레이션보다 경제가 낮은 수준의 양의 성장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은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해 초엔 리오프닝이 이뤄지고 보복 소비와 보복 투자 등 일정한 경기 확장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간 전 세계가 다플레이션(deflation) 우려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 실현 경로가 달라지겠지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의 지속성과 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4. 과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2000년대 이후에 물가인정목표제와 정책금리를 통해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한 이지를 정책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IMF 외환위기 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10%에 육박하는 압축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10% 전후를 넘나드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죠. 이에 IMF 외환위기 이후 물가인정목표제가 도입되고 한국은행의 물가인정 책무가 명확해지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2011년까지 3% 내외의 낮고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달성했습니다.

Q4-1.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0.25%p씩 네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인 측면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 15년간 전 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의 기저를 이뤘던 요소들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온라인 위주의 유통 구조△원유 수입의 대체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중국의 세계무역 기구(WTO) 가입 이후 값싼 제조품의 대량 공급 등의 요인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리오프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 확장의 둔화가능성(미·중 패권경쟁·우크라이나 전쟁·중국 GDP 성장으로 인한 저임금 저비용 제품 생산 어려움)의 이유로 앞으로의 물가가 지난 15년의 낮은 인플레이션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종립금리를 향해 맞추는 것이 유일한 수로 보입니다. 특히 공급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에 공급망 및 수급선 다변화 등 교역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Q5. 다른 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1990년대 이래로 인플레이션 안정은 오랜 기간 중앙은행의 책무로써 정립돼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엔 유로존(Eurozone) 국가 간의 다양한 처치 등으로 인해 정책금리보다 우선 양적완화를 축소한 이후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 약한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에야 오랜 기간 목표로 했던 2%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추세가 더 지속적인지 여부를 살펴볼며 가장 늦게 정책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모티브 :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
 **자이언트 시스템 : 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는 것.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금리는 0.25%씩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질 땐 이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기도 있음
 미모티브 : 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것
 ***비대체재투자 : 특정 시장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자본△자산의 전부를 대
 한 진료를 보고하는 양식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아름다움과 건강을 나누는 Global Bio 기업!
Life Plus, Bio Plus!

바이오플러스㈜는 세계유일의 독보적인 원천 플랫폼 기술인 “MDM” Tech를 적용한
 생체재료 응용제품(필러, 유착방지제, 관절조직수복재, 방광염치료제, 생체유방, 생체연골대체제)과
 바이오 치료제를 포함한 차세대 바이오제품
 (개량형 보툴리눔독신, 개량형 비만치료제, 광범위 바이러스치료제)에 이르는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해, “오늘을 아름답게, 내일을 건강하게” 라는
 우리의 가치를 세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1년 09월 27일 코스닥 상장

 **BioPlus**
<http://bioplus.co.kr>



색안경 벗기

난 어릴 때부터 세상을 색에 비유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각기 다른 고유한 색을 띠고 있다. 난 색안경을 쓰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겪은 일에 색을 지정하곤 했다. 그러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던 습관으로 인해 나는 아픈 경험을 했다.

외대학보에 들어오기 전 난 색안경을 끼고 내가 본 세상만이 정답이라 믿었다. 그 마음은 내 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매사를 편견에 갇혀 판단하던 습관이 기사에 반영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전달하는 기자의 본질과 멀어졌다. 사실 외대학보 면접 때부터 선배 기자는 이런 내 문제점을 예측했던 것 같다. 면접 당시 선배 기자로부터 내가 쓴 기사가 중립적이지 못해 수정이 필요하단 답변을 받았다. 그때 처음으로 내 글에 담긴 편견에 대해 고민했다.

정기자가 된 후 작성한 첫 보도 기사는 전면 수정이 필요했다. 기사 속에 정확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했고 편향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수정 작업을 거치며 내 기사에 녹아든 편향된 색을 빼는 작업은 힘들었다. 편견이 빠진 객관적인 기사를 작성하리라 결심했지만 이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몇 번의 발행을 거치며 내 글이 점점 객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생각했다. 그러나 네 번째 신문 발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취재를 위해 작성한 설문지에 담긴 내 편향된 질문이 취재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그 애정 어린 비판은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의 필요성을 잊고 있던 내게 경각심을 줬다.

6개월 동안 몇 번의 발행을 거쳐 정기자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됐지만 아직도 기사에 사실만을 작성하는 게 힘들다. 그러나 내가 색안경을 쓴 걸 인식한 것만으로도 외대학보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한다. 학내 기자 생활 동안 얼마나 더 예기치 못한 순간이 펼쳐질지 두렵지만 한편으로 내 기사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된다. 앞으로 내 문제점을 잊지 않고 발전시켜 모두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학내 기자가 되려 한다.



나라나 기자

[책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진정한 공정은 무엇인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진행될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정치권에서 외면당했던 20대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떠오르며 ‘공정’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2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투어 공정이란 키워드를 내세운 공약을 발표한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란 사전적 정의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엔 “문화와 사회·정치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공정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회의 공정은 보장하지만 과정과 결과에서의 공정은 보장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배경이 달라도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다수는 공정이 능력에 따른 분배를 통해 실현된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책 ‘공정하다는 착각’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이하 샌델 교수는) ‘과연 능력주의가 곧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란 질문을 던진다. 이런 이유로 공정에 대한 문제는 곧 학벌과 관련 있는 능력주의와 연관돼 나타난다. 특히 학벌이 결정되는 입시에서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이하 수능)의 점수는 부모가 고학력이거나 경제력이 풍족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띤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갖춘 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선단 사실로 공정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좋은 학벌을 갖게 된 이들은 자신의 운과 배경의 덕을 봤단 사실은 잊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은 채 스스로 만든 결과라 믿으며 능력주의가 곧 공정이라 믿게 된다. 이런 결과는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만들며 학벌의 양극화 현상을 만들고 심화시킨다.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성공하지 못 한 사람을 패배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말이 곧 정답이자 항상 공정하던 사회적 인식을 만든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가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학력주의 편견을 조성한다고 말한다.

지난 5월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 간 유사·중복학과 폐과존치 과정을 거치며 구성원 간 큰 논란이 일어났다. 학교 측의 조치는 구성원 간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고 대안책을 제시한 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캠 학생은 높은 수능 점수로 증명되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나온 능력주의 신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연상케 했다.

높은 능력을 갖춘 자의 말이 모두 공정하고 정당한 것은 아니다. 또한 공정이 능력주의만을 통해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살피고 과정과 결과에서 공정을 모두 이룩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양채은 기자 03chaeu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소공녀’를 보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는 것

‘담배나 술 등의 기호식품’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집’,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 ‘소공녀’ 속 주인공 ‘미소’는 한 치의 고민 없이 담배와 술을 택할 사람이다.

미소는 위스키와 담배를 좋아하는 가난한 가사도우미다. 그는 머물던 단칸방의 월세가 오르자 집을 떠나 고등학교 때 함께 밴드부를 했던 친구들의 집에서 신세를 진다. 위스키와 담배를 위한 지출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소는 한 달간 △승진을 위해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는 ‘문영’ △좁은 빌라에서 대가족을 부양하며 고달프게 살아가는 ‘현정’ △이혼 후 집에 칩거해 매일 술만 마시는 ‘대용’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록이’ △넓은 단독주택에서 부유한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정미’의 집을 전전한다. 미소는 다섯 친구의 집을 방문하지만 각자의 생활 문제로 인해 오래 지나지 않아 그들의 집에서 나온다. 결국 그는 한강 근처에 빨간색 텐트를 치고 생활하게 된다.

스무 살이 되고 나선 언론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다. 현대 사회에서 집이 갖는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요즘 대부분의 청춘은 살기 위해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 시장의 침체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폭등했다. 이는 예산을 초과하고라도 집을 소유하겠다는 비틀린 욕망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부동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부터 50대 가구주의 부채는 평균 8,800만 원으로 2020년에 비해 6

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휴식의 공간이어야 할 집이 빚을 만들어서까지 차지해야 하는 수단이 된단 것이 옳은 일일까. 집의 사전적 정의는 ‘거주를 위한 건물’이다. 휴식을 위한 거주지를 의미하는 집이란 단어는 그 본질보다 재산 축적의 사회적 수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에게 소중한 가치보다 무조건 집을 마련해야 한단 허상된 목표에만 집중하곤 한다.

영화에선 사회적으로 중요시하는 집이란 가치보다 본인만의 신념을 지키는 미소의 삶을 두고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는다. 감독은 그의 여정을 통해 인생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사회의 시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란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 모두에게 미소의 위스키와 담배처럼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누군가에게 그것이 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자유일 수도 있다. 다만 사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집을 마련하고 멋들어진 직장을 구하기 바쁠 뿐이다. 그런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미소가 가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는 △돈△웃△집 등을 모두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자신만의 가치가 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1067호 학보를 읽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학내 구성원 간의 동등함

소통은 어느 집단에서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구성원이 화합하기 위해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학교는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번 호는 학내 구성원 간의 불통 문제를 투명하게 다뤘다.

4면에선 최근 학생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우리학교 학칙 개정안’에 관한 사실을 다뤘다. 이번 학칙 개정안엔 유사·중복학과(부) 폐과존치(이하 폐과존치) 규정안의 내용이 포함돼 해당 학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양 캠퍼스(이하 양 캠퍼) 총학생회가 진행한 폐과존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해 학교 구성원의 폐과존치 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일치하진 않는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과존치에 관한 학칙 개정을 진행했던 점에서 양 캠퍼의 의견이 일치했다.

5면에선 AI 융합전공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AI 융합전공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AI 융합전공을 이중전공하고 있는 학생 측에선 △강의 확보의 어려움 △기존 학부와 유사성 △부족한 교수진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생 측의 의견을 담아

낼 수 있도록 소통 장구를 다각화하겠다는 학교 측의 입장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AI 융합전공 설립 전부터 학교와 학생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든다.

7면에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른 대학 축제의 부활과 학생자치활동 공간 활용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 다뤘다.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규제 완화 조치 후 학생 사회가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의 허용범위 내에서 대면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학교 측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 측에 아직 규제나 단계별 대응책이 전달되지 않는 등 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뤄지기 위해선 학교와 학생의 동등함이 전제돼야 한다. 학생의 목소리를 단순히 참고해야 할 조언으로만 여기기보단 학제 운영에 있어 학교와 동등한 주체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학교와 동등한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박원주 (사범·한국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67호 학보를 읽고

늘어나는 대면 행사, 소통의 장도 더 늘어나기를

우리학교는 5월의 초여름을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교정을 거니는 학생도 많아졌다. 학교 인원으로 여러 대면 행사가 개최된단 소식 또한 들려온다. 한동안 없어 버렸던 일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우리학교 학생 모두 설렘을 가지고 교정을 누비고 있을 바란다.

4면에선 최근 우리학교에서 화제가 된 유사·중복학과(부)폐과존치 규정안(이하 규정안)에 대해 다뤘다. 해당 사안에 대해 우리학교 총장과 학생 간의 의견 대립이 심화됐다. 서울캠퍼스에선 총학생회가 노숙 농성을 진행했고 글로벌캠퍼스에선 긴급 정기총회가 열렸다.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사회회)에선 규정안이 가결됐다. 또한 양 캠퍼스 학생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과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양산되던 모습은 학내 구성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규정안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은 불통 행정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학생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5면의 AI 융합전공에 관한 기사 또한 흥미로웠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9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후 2020년도 1학기부터 AI 융합전공을 신설했다. 그러나 현재 AI 융합전공을 수강 중인 재학생은 △교수·강사진 부족 △기

존학부와 유사성 △재학생 간 정보 격차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컴퓨터공학부 소속 구성원 또한 AI 융합전공과의 전공 유사성을 지적하는 등 현재 AI 융합전공이 지닌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AI 융합전공생과 학교 간의 소통 및 조정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7면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활발해진 우리학교 내 대면 행사에 대해 다뤘다. 양 캠퍼스 모두 △템버십 트레이닝(템타) △축제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치활동 공간 개방 기준 자율화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 △집단 감염 위험 △학습권 침해 등의 요소가 남아있기에 대면 행사 진행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방역 지침과 행사 안전 준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대학 생활을 하기 바란다.

대부분의 1067호 기사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내 구성원 사이에 소통이 문제가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더 나아가 직간접적 갈등에 직면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대학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최대한(국제지역·한국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을 응원하며

국 · 부장 고정칼럼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란 유명한 명제로 정의했다. 어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 표현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에서야 인간의 이러한 본성대로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됐다. 주말의 △야구장△영화관△ 시내 카페 풍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 전으로 돌아간 듯 인산인해를 이룬다. 대학가 역시 활기를 되찾았다. △멤버스십트레이닝(엠티)△축제△체육대회 등 대면 행사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번 외대학보 1068호에선 비일상과 일상 사이의 변곡점에 놓인 우리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기록하려 노력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선 3년 만에 온전히 대면 형식으로 축제가 열렸다. 축제 기간 만났던 다양한 글캠 학생들은 새롭게 혹은 오랜만에 경험하는 체함에 몰두해 있었고 표정은 활기를 띠었다. 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공통된 체함을 하고 그곳에서 비롯된 감정을 공유할 때에만 느낄 수 있는 활기일 것이다. 글캠 내 활기를 되찾아준 축제를 준비한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한다.

또한 입학부부터 지금까지 대학 생활에서 비일상과 일상을 모두

경험해본 20학번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두 20학번 학우 모두 지난 2년간 이뤄졌던 비대면 대학 생활의 아쉬움과 새롭게 다가올 대면 대학 생활의 기대감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다. 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구성원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비록 20학번은 휴학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미 3학년이 돼 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대면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

한 사회학자가 요즘 시대의 대학생을 가치를 쫓지 않는 ‘무가치의 세대’라 비판한 바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대학생은 민주주의란 사회적 가치를 위해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사회의 구성원이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전무하며 취업을 위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간단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자신을 개발해야 취업 전선에서 겨우 승리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학 생활조차 누리지 못한 대학생에게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표현이 아닐까. 일상 회복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모든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을 응원한다.

정봉비 편집장 02jbb@hufs.ac.kr



기술 · 규범경쟁의 기로에 선 한국의 상황과 선택

이번 달 19~20일 조 바이든(이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 따른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간에 열렸다. 이번 방한의 첫 일정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다. 국내 언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우선 찾은 이유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전개되는 패권경쟁에서 가장 첨예한 분야가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이번 방한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경제안보였다. 경제안보란 본래 경제적 개념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포용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경제안보의 기본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안보는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를 뜻하며, 주로 △공급망 안정성△수출규제△첨단기술의 확보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다양한 경제안보 정책들을 내놔고,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방한에 앞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라는 생소한 용어가 주목을 받았다. 우선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의 지역 개념을 인도까지 확장하고, 이를 전략화한 것이다. 이 전략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서로 연결, 통합된 지정학적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외교 등 각 분야에서 역내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등장한 데엔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는 △미국△일본△인도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균형 전략으로써 인도의 참여가 필요했다. 인도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일본은 애초 2000년대 중반부터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먼저 제시했다.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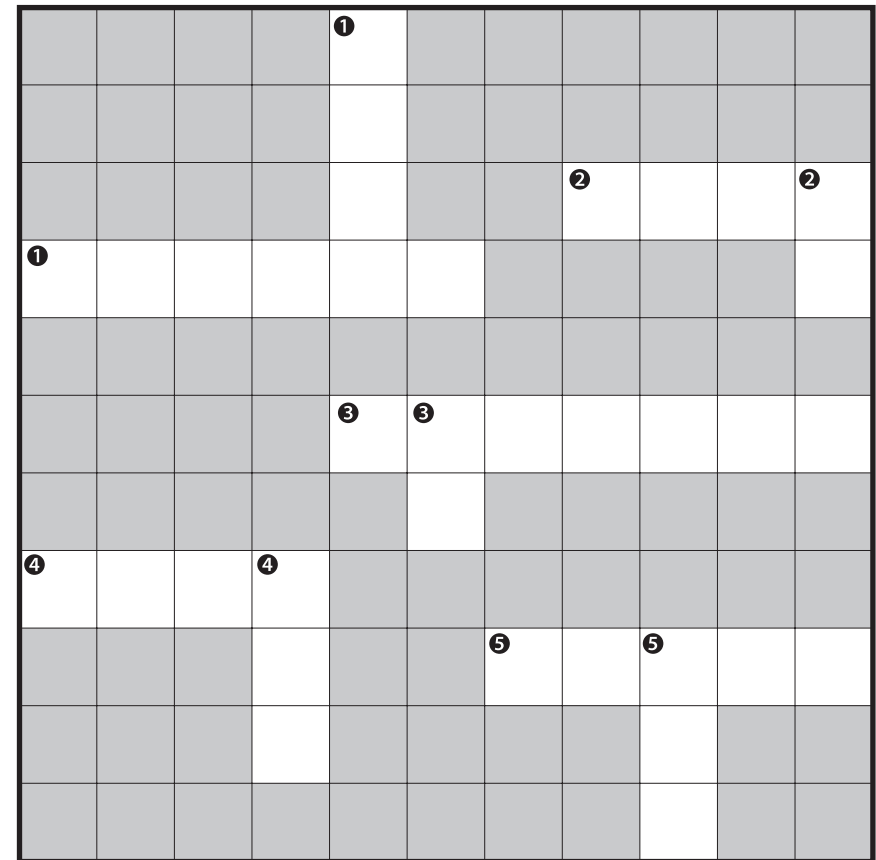
지금까지 발표된 IPEF 계획은 △공급망△인프라·에너지△무역△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IPEF가 일반적인 무역협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PEF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안보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핵심 산업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경제, 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의 더 적극적인 대아시아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IPEF는 국제규범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무역장벽 철폐에 주력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르며△상품△서비스△투자 등의 시장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노동△보조금△환경 등 다양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무역규범을 정립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구체적인 협정보다는 클럽 성격의 협의체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경제영역에서 견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작년부터 무역기술위원회(TTC)라는 협의체를 발족시켜 운영 중이다. △공급망△데이터△무역규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질서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IPEF도 유사한 모습을 갖추 가능성이 크다. 지난 30여 년간 많은 국가들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다른 국가와의 시장통합을 추진했다. 이제는 무게의 추가 기술·규범 동맹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한국의 수출 중 중국과 미국은 각각 25.3%와 14.9%로 1, 2위를 차지했다. 현재의 미·중 패권 경쟁을 양자택일의 구조로 이해한다면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환경에 적응하여 IPEF를 비롯한 다양한 협의체에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 양자택일이 아닌, 중점의 관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양자 관계를 특색에 맞춰 개선,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해결책 발굴을 통해 오히려 선도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십자말풀이



- 가로**
- 최우수 팀은 우리학교 통합 앱 개인화 서비스와 건물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투사하는 ○○○○○○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면 참조)
 - 원 연설 내용은 취임식에 참여한 각국의 대사와 외신 기자에게 전달됐다. (1면 참조)
 - 우리나라에선 ○○○○○○보다 경제가 낮은 수준의 양의 성장률을 보이며 슬로우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9면 참조)
 -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에 따라 일하고 있다. (8면 참조)
 - 시장에 유통성을 공급하게 되면서 미국의 ○○○○자산의 크기는 불어났다. (9면 참조)
- 세로**
- 대표적인 ○○○○기관인 △글로벌리서치△데일리리서치△리서치앤리서치 등에서 제36대 경기도지사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 힘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했다. (7면 참조)
 - 그는 루마니아와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교류해온 ○○를 언급하며 두 국가가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1면 참조)
 - 문화관 교육을 명분으로 신입 간호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규율이다. (8면 참조)
 -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이 기획한 루마니아 전통 △○○○△의복 △장신구 등 공예품 전시회가 개최됐다. (1면 참조)
 -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가 개최됐다. (4면 참조)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이메일도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2jbb@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정봉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수험생의 든든한 지원군 지은경 수능 아랍어 강사를 만나다



지은경 (아시아·아랍어 98)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아랍어 강사(이하 지 강사)는 우리학교 아랍어 과와 중동어문학 아랍문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 강사는 대학원 졸업 후 아랍어 강사 생활을 시작해 현재 강남대성학원과 대성마이맥에서 수험생을 위한 아랍어 강의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국내 로펌 아랍어 판결문을 번역하고 쿠웨이트 코트라(KOTRA) 한국 기업 설명회 통역 등을 맡으며 우리나라의 세계화를 위해 힘썼다. 많은 수험생의 아랍어 멘토로 활동 중인 지 강사가 걸어온 길을 함께 따라가 보자.

Q1. 우리학교 아랍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수능 성적에 맞춰 갈 수 있는 선택지 중 아랍어과가 가장 마음에 끌려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의 우연한 선택을 계기로 현재 강사 생활을 하고 있단 생각이 들어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죠.

Q2. 대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수줍음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 모범생으로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하다 대학에 입학한 직후엔 방황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서 우리학교까지 통학하며 한강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벅차면서도 우리학교에서 제가 가장 초라하게 느껴지곤 했어요. 수능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았던 저와 다르게 선배와 동기의 뛰어난 △말솜씨△자신감△지식에 주눅이 든 적도 많았죠. 또한 전공과목은 너무 생소했고 공부 방법도 잘 알지 못해 헤맸습니다.

Q2-1. 기억에 남는 대학 시절 활동이 있나요?

‘스카우트’란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기존 동아리 회원들이 위축돼 있던 절 언제나 챙겨줬어요. 동아리를 통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제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각국의 학생을 만나 전문을 넓힐 수 있었죠.

또한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고자 MBC와 KBS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받은 상금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죠. 방송 출연의 부끄러움은 잠시였고 해외여행의 추억은 길었어요.

Q3. 우리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한 뒤 중동어문학 아랍문학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졸업 후 2년 가까이 언론고시를 준비하며 방송국과 신문사 입사 시험을 보러 다녔어요. 결국 최종 합격은 하지 못해 언론인의 꿈을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입사했죠. 회사에서 전공과 무관한 업무를 하며 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느끼지 못해 30살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전 늦게 도전을 시작하는 것 같단 생각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돌아켜보니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니었죠.

Q4. 수능 아랍어 강사란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원 진학 후 다시 아랍어를 공부하게 됐고 고등학교에서 아랍어 수업을 진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후 △교회△기업△입시학원에서 아랍어 강의를 맡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약 15년간 강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Q5. 강사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나요?

대학 시절 내내 많은 학생을 가르치며 학생들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수능을 본 다음 날부터 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어요. 이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져 일주일에 16번 정도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의 태도와 눈빛을 통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또한 언론고시를 준비하며 연습했던 카메라 테스트도 강사가 된 이후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죠. 과외를 하느라 고단했던 세월과 언론고시

에 낙방하며 좌절했던 시간이 결국 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Q6. 강사 생활 동안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아랍어 성적 덕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거나 수능을 위해 배웠던 아랍어에 흥미를 느껴 아랍어과에 진학했다고 연락이 올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껴요. 강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 지식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도록 옆에서 도울 수 있던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6-1. 강사 생활을 하며 느낀 직업적 고충이 있나요?

강사는 학생의 일정에 맞춰 살며 학생이 입시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대신 짊어줘야 해요. 출산 후 6일 만에 강의를 위해 학원으로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3달 동안 산후조리를 해야 했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책임감에 강의를 쉬지 않았죠. 또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매번 더 나은 강의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Q7. 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받은 △경제적 여유△기회△축복을 교만하게 사용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려고 해요. 제가 강사란 멋진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업료의 일정 부분은 △서울대학교 병원△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불우 이웃 등에 기부하고 있죠.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주변 사람에게 도

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Q8. 본인이 생각하는 아랍어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아랍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아랍어 전문가는 적은 편이죠. 본인이 아랍어를 잘 구사하고 목표가 뚜렷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전문가가 돼 중요하고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아랍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건 참 매력적인 일입니다.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우리학교만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내 미래에 도움이 될까’란 의구심을 가지며 했던 공부야 훗날 자신의 삶을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Q9. 외국어 강사의 꿈을 가진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국어 강사는 언어를 활용해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직업입니다. 언어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하기에 본인이 흥미를 느낀다면 안정적인 직업이죠. 이런 점에서 외국어 강사는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 기사를 읽는 우리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귀한 존재이고 짧단 것만으로도 빛나고 있던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주어진 긴 세월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제 몫을 해낼 진정한 어른이 될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